

韓國漢字音에 나타나는 i母音添加現象에 대하여*

- 日本漢字音 · 越南漢字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李京哲** · 崔志守***

(e-mail: kanzi22@empal.com · tomoko0604@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extracts some examples of consonant form with i vowel added in the Sino Korean according to each the rhymes and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iddle Chinese, Sino Japanese *Go'on* and *Kan'on* and the Sino Vietname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hymes that have consonant form with i vowel added in the Sino Korean correspond to examine this according to each vowel in Korean language, it is found in almost all vowels and this cannot be regarded as a phenomenon in agreement with monophthongization.

Initial that has the form of added i vowel in the Sino Korean appears after almost all of the consonants. Therefore,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occurred by the effect of palatal consonants.

The rhymes that have the consonant form of added i vowel in the Sino Korean seem to have derived not from the influence of Chinese language but from i vowel addition of Korean language itself since no factor to add i vowel is found in the history of phoneme of Chinese language or in the comparison with the Chinese character sound in other languages.

I vowel addition in Korean language was proceeding before the 15th century, and this is still under way today.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5205).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일어일문학과 교수, 日本語音韻論, 제1저자.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강사, 日本語音韻論, 교신저자.

key words : I vowel addition, Sino Korean, Sino Japanese *Go'on* and *Kan'on*,
Sino Vietnamese

序論

한국어의 i母音添加現象은 [소고기]가 [쇠고기]로, [지아비]가 [지애비]로, [罵마]가 [罵매]로 변하는 것과 같이 i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i모음첨가현상에 대해서 국어학계에서는 한국어 내에서 부음 i가 첨가되었을 가능성으로 보고, 그 시기는 17-18C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주요 연구로 유창돈(1964), 허웅(1965), 이기문(1972), 이승녕(1988), 金徑暄(1998)¹⁾, 金武林(2006), 李準煥(2011b)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한국한자음에 나타나는 i모음첨가형을 중국 원음에서 韻尾 i를 동반했을 가능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최희수(1996), 李潤東(1997) 등이 있다. 반면 河野六郎(1979a)는 중국어에서 韻尾 i를 동반했을 가능성과 한국어 내에서 韻尾 i가 첨가되었을 가능성 모두 있다고 해석하였다. 伊藤智ゆき(2002) 역시 중국 原音에서 韻尾 i를 동반했을 가능성과 ‘訂定傾向’ 혹은 ‘過度校訂’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i모음이 첨가된 자음형에 대하여 학자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또한 i모음첨가현상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차이가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中古音 16攝의 韻類體系에 의거해 韓·日·越漢字音 比較分韻表를 작성하여 한국한자음에서 같은 韻의 일반적인 字音形과 다르게 i모음이 첨가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자음형만을 취합하여 이를 각 韻별로 분석해 가고자 한다. 먼저 한국한자음에서 i모음이 첨가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자음형은 15-16C의 전승자료 12종에서 취합하였다. 이를 각 韻별로 中古音을 5C의 南北朝音, 7C의 切韻音, 8C의 秦音으로 세분하여 i모음이 첨가된 字音形이 중국 원음의 반영일 가능성과 한국어 내의 변화 가능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고찰한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韻이 일본 吳音 및 漢音 그리고 월남한자음에서 어떠한 자음형으로 출현하는지 비교·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한다.

이러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한국한자음에 출현하는 i모음첨가형이 중국 원음의 반영인지 한국한자음에 나타나는 독자적인 현상인지를 밝혀내고, 동시에 i모음첨가현상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한자음과 일본한자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참조하였다. 한국한자음 자료는 15세기부터 16세기의 전승한자음을 수록한 각종 經書의 諺解와 韻書 등이다. 일본 吳音 및 漢音 자료는 그 分韻表나 색인이 공간된 자료에서

1) 올라우트현상의 발생 시기에 대해 유창돈(1964:32)은 18C 후반, 허웅(1952:7-8)은 17C 말, 허웅(1965:433-437)은 19C경, 金徑暄(1998:147-177)은 17C 중엽 이전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i모음첨가현상을 二重母音이 단모음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반면 이승녕(1988:514-531)은 올라우트현상이 15C 초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사적 변화에 의한 자음형과 다른 계통의 자음형을 제외한 공통적인 자음형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韓國漢字音: 新增類合, 訓蒙字會, 千字文, 六祖, 眞言·三檀, 翻譯, 小學,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孝經²⁾

吳音: 法華經, 般若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³⁾

漢音: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 佛母大孔雀明王經, 文鏡秘府論⁴⁾

越南漢字音: 三根谷徹(1993)의 越南漢字音對照表⁵⁾

本論

이하 한국한자음에서 i모음이 첨가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자음형을 15-16C의 전승자료를 통해 추출하여, 이를 각韻별로 고찰해 간다. 각韻별로 表를 통해 먼저 i모음이 첨가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자음형을 訓蒙字會, 新增類合, 千字文, 기타자료로 나누어 제시하고, 동일한 例字에 대한 일본 吳音 및 漢音, 越南漢字音의 자음형을 제시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서 각韻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를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국한자음의 주된 반영을 <表>로 제시한다. 이 두 <表>를 기준으로 한국한자음에서 i모음이 첨가된 字音形이 중국 원음의 반영인지 한국어 내의 음운현상이나 변화에 의한 것인지 논증해 가기로 한다.

2) 字音分韻表는 河野六郎(1979b)·李京哲(2003a)·伊藤智ゆき(2002)의 分韻表와 權仁澣(2009)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字間을 고려하여 韓國漢字音資料는 字會(訓蒙字會), 類合(新增類合), 千字(千字文)로 약칭하였으며, 六祖(1), 眞言·三檀(2), 翻譯(3), 小學(4), 論語(5), 孟子(6), 大學(7), 中庸(8), 孝經(9)로 표기하였다.

3) 法華經은 小倉肇(1979), 般若波羅蜜多經은 김정빈(2007), 新譯華嚴經은 榎木久薰(1988), 光明眞言은 榎木久薰(1989), 承曆音義는 小倉肇(1979), 類聚名義抄는 沼本克明(199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字間을 고려하여 法華經(1), 般若經(2), 新譯華嚴經(3), 光明眞言(4), 承曆音義(5), 類聚名義抄(6)으로 표기하였다.

4)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는 佐々木勇(2009)의 資料編에 실린 分韻表를, 佛母大孔雀明王經은 李京哲(2005)의, 文鏡秘府論은 柏谷嘉弘(196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字間을 고려하여 蒙求(1), 群書治要(2), 三藏法師傳(3), 本朝文粹(4), 佛母大孔雀明王經(5), 文鏡秘府論(6)으로 표기하였다.

5) 資料分韻表에서 越南漢字音은 越音으로 약칭하며, 聲調表記는 생략한다. 또한 三根谷徹(1993)의 分韻表에 없는 字音은 www.hanviet.org(漢越字典)을 참조하였다. (검색일 2014. 05. 10)

1. 開口1等 歌韻

<表1-1> 歌韻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見	箇				개3,4		ㄱ6	ca
	個							ca
定	駄				타1 태16C 이후		ㄱ6	ɗa

<表1-2> 歌韻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⁶⁾ 및 各國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越音	韓國漢字音
歌개1	-a	-a	-a	-a	-a	-a	-a

<表1-2>와 같이 開口1等 歌韻은 南北朝音, 切韻音을 통해 後舌低位母音의 a이었던 것이 秦音에서 前舌과 後舌의 구별도 없고 低位와 中低位의 구별도 없는 [-front, -low]의 a⁷⁾로 변화하는데, 한국어에는 低位後舌母音 a와 低位前舌母音 a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한국한자음에서는 中古音의 어느 시기를 반영 하더라도 -a형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일본 吳音 및 漢音, 월남한자음도 동일하게 -a형으로 출현한다.

그런데 한국한자음에 예외적인 반영으로 -ai형인 [箇개]가 출현한다. [箇]에 대하여 董同龢(1965), 王力(1985), 鄭張尙芳(2003)은 모두 中古音을 ka로 재구하고 있으며, 그 上古音을 李方桂(1980)는 karh로, 鄭張尙芳(2003)은 kaals로, 王力(1985)은 韻尾 i를 동반한 형태인 kai로 재구하고 있다. 따라서 王力(1985)의 견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자가 中古音과 上古音에서 韻尾 i를 동반하지 않은 형태로 보고 있다.

<表1-1>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箇]는 翻譯3(1518), 小學4(1518)에서 -ai형인 [개]로 나타난다. 일본 漢音에서는 -a형인 ㄱ로, 월남한자음에서도 -a형인 ca로 반영되었다.

한국한자음에서 나타나는 -ai형인 [箇개]의 반영에 대한 학자들의 이견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중국 원음을 반영했을 가능성으로 보는 견해와 한국어 내에서 i모음이 첨가되었을 가능성으로 보는 견해이다. 한편 河野六郎(1979a:447)는 [箇개]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어에서 韻尾 i를 동반했을 가능성⁸⁾과 한국어 내에서 韻尾 i가 첨가되었을 가능

6) 中古音은 平山久雄(1967)·河野六郎(1979b)·李京哲(2003a)의 再構音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7) 따라서 秦音의 a는 前舌低位母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李京哲(2014:83)을 참조하기 바란다.

성이 모두 있다고 해석하였다.

伊藤智ゆき(2002:114-115)는 중국 原音에서 음성환경을 반영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희수(1996:196-198)는 李方桂(1980)가 上古音を ar로 재구한 것을 근거로 上古音 ar가 ai로 변한 것⁹⁾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漢語 上古音의 영향으로 인정하고 있다.

李準煥(2011b:260)은 국어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口蓋性韻尾가 첨가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箇개]는 近代音의 核母音이 ɔ이므로 高母音화된 것이고 現代音에서는 ɣ가 되어 더 高母音化했기 때문에 중국 원음에서 口蓋性韻尾의 첨가를 야기할 만한 음운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 口蓋性韻尾 첨가형은 中古音 이후에 국어 내부적으로 형성된 음으로 보고 있다¹⁰⁾.

이처럼 開口1等 歌韻의 한국한자음 -ai형에 대하여 上古音의 반영, 原音의 음성적 반영, 국어내부적인 요인 등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본 吳音 및 漢音에서 i가 붙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월남한자음에서도 i모음이 후접하지 않는 -a형으로만 출현하는 점으로 보아 중국어 내에서 韻尾 i를 동반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i모음이 첨가된 자음형은 후술하는 다른 韻에서도 출현하고 있으며, 외국 한자음의 음형에서 이러한 형태를 찾을 수 없으므로 歌韻의 한국한자음 -ai형은 原音의 반영이라기보다는 한국어 내의 音韻變化인 i모음첨가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開口1等 歌韻에 속하는 한자에서 현재 [箇개, 駄태]가 -ai형으로 남아 있는데, [駄]는 六祖에서 [타]를 확인할 수 있어 <表1-2>와 같이 16C 이후

8) 한국한자음 중 歌韻에 韻尾 i가 첨가된 字들이 있는데 한국한자음 [箇개]의 자음형에 대해, 중국의 客家·汕頭·溫州方言 등에서 나타나는 韻尾 i의 첨가형 [箇kai] [鶻nguai] [舵汕頭tai·廣東'tai·福州tuai]의 자음형을 제시하여 중국어에서 韻尾 i를 동반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9) 최희수(1996:196-198)에서는 “歌韻의 中古音과 上古音의 주요모음은 대체로 비슷하다. 上古音에서 王力과 李方桂는 韻尾가 있는 것으로 본 반면, 董同龢는 단순모음으로 보았다. 王力은 上古音を ai로 추정하고, 李方桂는 ar로 추정하였다. 漢語의 어음변화 법칙으로 보아 ar가 ai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王力과 李方桂의 견해에 따라 韓國漢字音 ai는 上古로부터 中古에로의 변화과정의 음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王力(1985), 董同龢(1965), 李方桂(1980)가 추정한 歌部の 中古音과 上古音은 다음과 같다.

		中古音	上古音
王力	開口	a	ai
董同龢	開口	a/ja	a
李方桂	開口	â	ar

10) 李準煥(2011b:260)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戈韻의 [태妥]에서도 보이는데, [태妥]라는 글자도 漢語 원음에서는 韻尾 첨가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어 내부적으로 형성된 음으로 보고 있다.

[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으며, [箇]는 본고의 조사대상 자료에서는 그 예자가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가]로 수용된 것이 i모음첨가현상으로 [개]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合口1等 戈韻

<表2-1> 戈韻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透	妥		태				thoa	
心	鎖	쇄	쇄			ㅅ1,3	ㅅ4,5 toa	
	瑣	쇄	쇄				ㅅ3,4 toa	

<表2-2> 戈韻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 및 各國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越音	韓國漢字音
戈합1	-wa	-wa	-wa	-wa -a	-wa -a	-oa -a	-oa -a

合口1等 戈韻은 한국한자음에서 -a형과 -oa형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漢音과 吳音도 주로 -wa형으로 반영되었지만 -a형이 혼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한자음에는 -ai형인 [妥태]와 -oai형인 [鎖鎖쇄]와 같이 i모음이 첨가된 자음형이 출현한다.

[妥]에 대하여 董同龢(1965), 王力(1980), 鄭張尙芳(2003)은 모두 中古音을 thuA로 재구하고 있으며, 上古音에 대해서는 李方桂(1985)·鄭張尙芳(2003)은 韻尾 i를 동반하지 않은 형태인 hnuarx/nhool?로, 王力(1980)은 韻尾 i를 동반한 형태인 thuai로 재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鎖瑣]에 대하여 董同龢(1965), 王力(1985), 鄭張尙芳(2003)은 모두 中古音을 suA로 재구하고 있으며, 上古音은 李方桂(1980)·鄭張尙芳(2003)은 韻尾 i를 동반하지 않은 형태인 suarx/sool?로, 王力(1985)은 韻尾 i를 동반한 형태인 suai로 재구하고 있다. 즉 開口韻인 歌韻과 동일하게 王力(1980)의 견해를 제외하고 韻尾 i를 동반하지 않은 형태로 재구하고 있다.

최희수(1996:197)는 [妥태·鎖쇄/쇄·瑣쇄]의 i모음첨가형에 대하여 開口1等 歌韻과 동일하게 李方桂(1980)가 戈韻의 上古音을 [war]로 추정된 것에 근거하여 韻尾音인 r이 i로 변할 수 있으므로 -oai형은 ‘上古로부터 中古에로의 변화과정의 음’이라고 보았다. 李潤東(1997:139)도 같은 의견으로 上古音의 韻尾 r의 약화로 인해 i로 바뀐 上古音의 반영으로 판단하였다. 즉 韻尾 i 첨가의 원

인을 한국한자음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원음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그러나 李準煥(2011a:260)은 漢語 원음에서는 韻尾 첨가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국어 내부적으로 형성된 음으로 보고 있다.

일본 漢音과 吳音의 경우는 [鎖𪛗/쇄]는 -a형인 ㅜ로 나타난다. 월남한자음에서도 [妥태·鎖𪛗/쇄·瑣쇄]는 -oa[ɔa]형으로 출현한다. 즉 일본한자음과 월남한자음에서는 i모음이 후접하는 자음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中古音 내의 음운변화나 타국한자음에서 i모음이 첨가된 형태의 출현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i모음첨가형은 한국어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鎖𪛗/쇄]의 경우 訓蒙字會에서는 [鎖𪛗]로, 新增類合에서는 [鎖𪛗/쇄]로 출현하는데, 동일한 한자에 대해 i모음이 첨가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같은 시기의 자료에 출현한다는 점에서, 만일 이러한 자음형이 한국어의 i모음첨가현상에 의한 것이라면 한국어의 i모음첨가현상이 15C에도 진행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妥]도 現代音은 [타]로 변화해 있기 때문에 15C를 전후해서 [妥]에 대해서는 [타]와 [태]가 공존하다가 결국 [타]로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開口1等 模韻

<表3-1> 模韻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來	賂	뢰	뢰				ㄹ2	lô

<表3-2> 模韻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 및 各國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越音	韓國漢字音
模개1	-ɮu	-o	-o	-u -o	-o -ou	-ô	-o -u

<表3-2>와 같이 開口1等 模韻은 吳音에서 나타나는 -o형과 -u형의 혼재, 漢音의 -o형 등을 고려하면 [主母音+韻尾]의 구조를 가진 ɮu에서 o로 單母音 化해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한자음에서 대부분 -o형으로 나타나며, 吳音은 -o형과 -u형이 혼재하며, 漢音은 대부분 -o형으로, 월남한자음은 대부분 -ô[o]형으로 출현한다.

그런데 <表3-1>과 같이 i모음이 추가된 형태의 [賂뢰]가 출현한다. 이 [賂]는 일본 漢音에서 -o형인 ㄹ로, 월남한자음에서는 -ô[o]형인 lô[lo]로 출현하며, 그밖에도 일본한자음과 월남한자음에서는 模韻에서 i모음이 후접한 형태의 자

음형을 찾을 수 없다. 중국어 음운사를 통해서도 타국한자음을 통해서도 [賂]의 출현요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한국한자음에서 [로]로 수용되었던 것이 15C 이전에 [뢰]로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開口1等 豪韻

<表4-1> 豪韻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泥	腦	노	노		※11)뇌	ノウ1,2,5		nao
	惱				노1,2 ※뇌	ノウ1,2,4,6	タウ5	nao
來	牢	뢰	로		뢰3,4/로5	ラウ1,2,3	ラウ2,3,4	lao

<表4-2> 豪韻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 및 各國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越音	韓國漢字音
豪개1	-au	-au	-au	-au -ou·-o	-au	-ao	-o -jo

開口1等 豪韻은 한국한자음에서 주로 -o형으로 나타나며, -jo형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漢音과 吳音은 대부분 -au형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ou형·-o형이 혼재하고 있다.

그런데 <表4-1>과 같이 i모음이 추가된 형태의 [牢뢰]가 출현한다. 이 [牢뢰]에 대하여 河野六郎(1979a:447)는 開口1等 歌韻의 [箇개]와 동일한 기원을 가진 것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어에서 韻尾 i를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한국어 내에서 韻尾 i가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李準煥(2011b:211)은 한국어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i가 첨가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近代 한국어의 口蓋音化와 관련하여 口蓋性 半母音의 첨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¹²⁾. 李潤東(1997:202)은 上古音 [log]에서 [g]가 [i]로 변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伊藤智ゆき(2002:171-178)는 15-16C 이전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腦惱노]가 16C 이후 현대 한국어에서 [腦惱뇌]로 변화하였으므로 ‘訂定傾向’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表4-1>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i형은 15-16C 이전 자료에 나타

11) 16C 이후 자료에 i모음이 첨가된 字音形은 ※를 표시하였다.
 12) 李準煥(2011b:211)은 이들의 先行子音인 ‘ㄴ’과 ‘ㄷ’은 口蓋音化의 被動化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는 자음형 [牢叢]와 16C 이후 자료에 나타나는 字音形 [腦惱뇌]가 있으며, [牢로/叢]의 경우 翻譯3(1518), 小學4(1518)에서는 [牢叢]로, 論語5(1590)에는 [牢로]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한자음에서는 -au형 · -ou형 · -o형으로, 월남한자음에서는 -ao형으로, i모음이 뒤에 붙지 않는 자음형으로만 출현한다. 따라서 한국한자음 -oi형은 한국어 자체의 i모음첨가현상으로 인해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5. 開口2等 麻韻

<表5-1> 麻韻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審	灑		쇄		쇄2,3/쇄4,5/쇄6	シヤ1,2,3,6	サ6	sai
幫	霸			패	파6/패5,6			ba
	壩	패						ba
明	罵	마	매			マ1,2,3	バ5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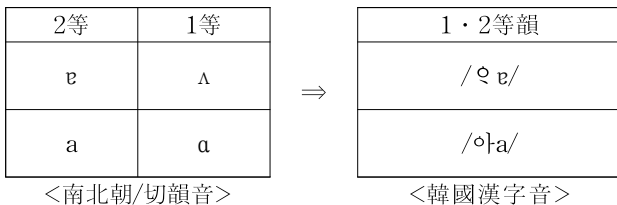
<表5-2> 麻韻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 및 各國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越音	韓國漢字音
麻개2	-a	-a	-a	-e -ja -a	-a	-a	-a -ja

<表5-3> 中古音 1·2等韻에서의 主母音의 변화과정



<表5-4> 韓國漢字音 1·2等韻에서의 主母音의 수용양상



麻韻 開口2等은 한국한자음에서 -a형으로 주로 반영되었고 -ai형 등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漢音에서는 한국한자음과 같이 -a형으로 반영되었으며, 吳音은 -e형, -a형, -ja형으로 반영되어 있다.

<表5-3>과 같이 開口2等 麻韻은 南北朝音, 切韻音을 통해 前舌低位母音의 a이었던 것이 長安音인 秦音에서 低位前舌的인 a가 前舌과 後舌, 그리고 中位와 低位의 구별이 없는 하나의 a[mid, cen]로 통합된다¹³⁾. <表5-4>와 같이 한국어에는 低位前舌母音 a와 低位後舌母音 a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한국한자음에서는 中古音의 어느 시기를 반영하더라도 -a형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吳音에서 -ja형과 -e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麻韻의 主母音이 前舌的인 a이었기 때문에 ㄱ단보다는 ㄷ단에 가깝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¹⁴⁾, 漢音에서는 -a형으로 반영된 것은 唐代 長安音인 秦音에서 前舌的인 a가 前·後舌과 低·中低位的 구별을 상실한 a로 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表5-1>과 같이 한국한자음에서 [罵매, 霸/壩/배, 灑/새/세]와 같이 i모음이 첨가된 형태인 -ai형이 출현한다. 이 중에서 [灑]는 蟹攝 開口2等 佳韻에도 해당하는 多音字이므로, 한국한자음의 [새/세/세]와 월남한자음의 sai는 이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李潤東(1997:140-141)은 [罵매, 霸/壩/배]에 대하여 [罵매, 霸/배]는 上古에서 中古로의 ‘變化過程音’으로, [壩/배]는 聲符類推로 추정하였다. 金武林(2006:117-118)·李敦柱(1990:18)는 -ai형에 대하여 한국한자음 내부 변화과정에서 부음첨가나 韻尾 i의 첨가형으로 보았으며, 李準煥(2011a:262)도 口蓋性母音의 語尾인 j가 첨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唇音 聲母 아래에서만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본고의 결론에서 언급하듯이 한국한자음에서 i모음첨가형은 거의 모든 子音 뒤에 출현하고 있어, 선행자음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伊藤智ゆき(2002)는 중국 원음의 영향이나 ‘過度校訂’의 영향 두 가지¹⁵⁾로 해석하였다.

開口2等 麻韻은 일본 吳音에서 -e형, -a형, -ja형으로, 漢音과 월남한자음에서

1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秦音의 a는 前舌低位母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4) 麻韻은 前舌的인 a이기 때문에 前舌的인 a와 後舌的인 a의 音韻上 구별이 없는 日本語에서는 前舌的 a를 ㄱ段音으로도 ㄷ段音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영은 麻韻 이외의 2等韻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效韻의 -eu형, 皆·佳·快韻의 -e형, 刪·山韻의 -en/-et형, 銜·咸韻의 -em/-ep형과 같은 2等字의 字音形을 통해 前舌的인 a를 日本語에서는 ㄱ段音보다는 ㄷ段音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 [罵매, 霸/壩/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歌韻에 있어서 [a/ai]의 혼재 때문에 한국한자음에서 [a/ai]의 두 가지 형을 지닌 글자가 많아진 결과, 원래 [a]로 나타나는 것이 [ai]로 발음하는 ‘과도교정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罵매, 霸/壩/배]는 중국의 어떤 음을 본뜬 것인지 아니면 한국한자음에서의 ‘과도교정’인지 분명치 않다고 하였다.

-a형으로 출현하여 i모음이 후접하는 자음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한자음 -ai의 반영도 開口1等 歌韻과 동일하게 한국어 자체의 i모음첨가현상으로 인해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罵마/매, 覇파/패]와 같이 자료에 따른 자음형의 차이를 통해 15C에 한국어의 i모음첨가현상이 진행중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6. 合口2等 山韻

<表6-1> 山韻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山	刷	쇄	살		※쇄			soat

<表6-2> 山韻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 및 各國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越音	韓國漢字音
山合2	-(w)en/t	-(w)en/t	-(w)an/t	-(w)en/t	-(w)an/t	-(w)an/t	-(w)an/l

합口2等 山韻은 한국한자음에서 -oan/-oal형으로 나타나고, 일본 吳音은 -(w)en/-(w)et형으로, 漢音은 -(w)an/-(w)at형으로, 월남한자음은 -oan/t형으로 출현한다.

그런데 한국한자음에 <표6-1>과 같이 [刷쇄/쇄]가 출현한다. [刷]는 訓蒙字會에서 [刷쇄]로 新增類合에서는 [刷살]로, 16C 이후에서는 [刷쇄]로 나타나고 있다. 이 [刷쇄]에 대해 金武林(2006:111)·李敦柱(2003:150)은 入聲韻尾가 탈락한 近代音 *ɕwa*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刷쇄]는 入聲이지만 韻尾가 탈락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近世 이후의 중국어의 음을 수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며, [刷쇄]는 이 [刷쇄]로 수용된 이후에 i모음이 첨가된 형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刷]는 한국한자음에서 中古音을 반영하여 [살]로 사용되다가, 이후 近世音의 영향으로 [쇄]라는 새로운 字音이 출현하였고, 이것이 i모음첨가현상을 일으켜 [쇄]가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7. 開口3等 魚韻 갑을류

<表7-1> 魚韻 을류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見	筥	계					キヨ2	cu

<表7-2> 魚韻 ㅈ류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喻	豫		예	예	예3,4,6	ㄹ1,2,3,6	ㄹ1,2,4,6	du
	預		예		예3,4	ㄹ1,6 이요오1	ㄹ1,4 요우3	du
	譽	예	예	예	여5,6,8/예3,4,6	ㄹ1,2,3	요4	du
知	猪	테			저4/테3	치요1,2,6	치요4	tru
澄	除		테		테2,3,4/더3,4,8	치요1,3	치요4,5	tru
照	諸				저4,5,6,7,8,9 제1,2,3,4	시요1,2,3, 4,6	시요5 요5	chu

<表7-3> 魚韻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 및 各國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越音	韓國漢字音
魚개3을	-i̯au	-i̯əu	-iəu	-o	-jo	-u	-ə
魚개3갑	-i̯au	-iəu		-jo			-jə

<表7-3>과 같이 開口3等 魚韻은 한국한자음에서 ㄹ류는 -ə형(단 齒音字는 -o형)으로 ㅈ류는 -jə형으로 출현하며, 吳音도 ㄹ류는 -o형, ㅈ류는 -jo형으로 출현하여 ㅈㄹ류를 구별하고 있지만, 漢音은 ㅈㄹ류 모두 -jo형, 월남한자음은 ㅈㄹ류 모두 -u형으로 출현한다.

그런데 위의 <表7-1><表7-2>와 같이 ㄹ류에 -ai형인 [筥계]와 ㅈ류에 -jai형인 [豫預譽예/猪테/除테]와 같이 i모음이 첨가된 형태의 자음형이 출현한다. 먼저 이처럼 魚韻의 한국한자음에 -ai형 · -jai형이 출현하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이견을 살펴보자. 趙大夏(2000:257-272)는 訓蒙字會의 [筥계/kəj/(魚韻 ㄹ류)], [譽예/jəj/(魚韻 ㅈ류)]의 예에 대해 이것이 百濟系 도래인에 의해 일본에 전래되어 日本語表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古層의 한자음으로 보고 있다. 金武林(2006:101-102)은 -jai형인 [豫預譽예]에 대하여 부음 j가 덧붙는 현상은 한국한자음 내부변화의 원인으로 보아 近代的인 반영으로 추정하였다. 伊藤智ゆき(2002:129)는 [豫預譽예] [猪저/테除더/테] 등 魚韻에 -ai, -jai형이 나타나는 현상이 i모음첨가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들 -ai, -jai형은 魚韻의 主母音이 좀더 前舌化되어 전체적으로 i류의 음과 가까워졌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론하며, 이러한 반영은 ‘訂定傾向’의 일종이라고 하였다¹⁶⁾.

16) 伊藤智ゆき(2002:129)는 한국한자음의 魚韻字가 韻尾 -i를 동반한 형태와 동반하지 않은 형태 두 가지를 지니는 경우 韻尾 -i를 지니지 않은 형태는 四書諺解 『孝諺』에 많이 보이며, 이것은 韻尾 -i를 가지지 않는 형태가 魚韻의 정규대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訂定傾向’의 일종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한자음에서 韻尾 -i를 동반한 형태는 [筥계]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舌音과 齒音으로, 舌音과 齒音의 영향으로 前舌化가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表7-3>에서 볼 수 있듯이 魚韻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에서도 일본 한자음과 월남한자음에서도 i모음이 후접한 형태의 자음형을 찾아볼 수 없으며, i모음을 후접하게 하는 요인도 찾아볼 수 없다¹⁷⁾.

따라서 魚韻 음류의 -ai형인 [筥계]와 갑류의 -jai형인 [豫預譽예/猪데/除데]는 모두 한국어 자체의 i모음첨가현상으로 인해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이는 魚韻 음류의 -ə형과 갑류의 -jə형에 i모음만 첨가된 형태이기 때문에 한자음 수용단계에서는 [筥거]와 [豫預譽여/猪더/除더]로 갑음류를 구별하여 수용했다가 15C 이전에 i모음이 첨가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음류의 [筥]와 갑류의 [豫預譽/猪除]의 원형을 [*거]와 [*여/더]로 환원할 수 있다면 그母胎가 된 시기 역시 3등 갑음류가 합류하는 秦音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豫預예]는 15세기 이전에 이미 i모음첨가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譽예/여, 猪데/저, 除데/더, 諸제/저]와 같이 -jə형과 -jai형이 혼재하는 것은 15-16C에도 i모음첨가현상이 진행중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譽예, 除諸제]는 i모음첨가형이 현재의 자음형으로 정착했으며, [筥거/猪저]는 규범의식으로 i모음첨가형이 쓰이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8. 開口3等 虞韻 갑류

<表8-1> 虞韻 갑류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精	媿	취						
清	取		취	취 취	취1,2,3,4,5,6,7	シュ1 シウ1	シュ1,5 シウ5 ス5	thu
	娶		취		취3,4,6		스우1 시우1 스1	thu
	趣				취1,2,3,4	シュ1 시우1	슈1 시우1 스우1	thu
從	聚		취	취	취1,2,4,5,6,7	シュ1,2,3,6	슈1,2,5 슈1,5	tu

17) 魚韻은 北京音에서 병음표기와 음성표기로 나타내면 -u/ü[y] 또는 yü[y]형이다. 따라서 金武林(2006:101-102)의 주장대로 韻尾音의 요소가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近代 이후에 변화한 발음으로 추정된다.

<表8-2> 虞韻 ㅅㅑ류에 ㅅㅑ친 中古音의 變化 및 各國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越音	韓國漢字音
虞개3ㅅㅑ	-iɿu> -iu	-iu	-iu	-iu -ju	-iu -ju	-u	-ju

虞韻은 南北朝音까지 魚韻과 같은 韻이었다가 切韻音에서 分韻한다. 虞韻 ㅅㅑ류는 韓國한자음에서 -ju형으로 출현하며, 일본 吳音과 漢音도 대부분 -iu형으로, 월남한자음은 -u형으로 출현한다.

그런데 韓國한자음에는 위의 <表8-1>과 같이 -ju형에 i모음이 추가된 형태의 [妮取娶趣聚暌]가 출현한다. 이에 대해 伊藤智ゆき(2002:132-133)는 두 가지로 추정하였는데, [妮取娶趣聚暌]는 介音과 主母音의 복합체임을 표시하고 있거나 韓國한자음 내의 새로운 한자음이라고 하였다¹⁸⁾. 그러나 -ju형이 中古音의 介音を i로, 그 主母音を u로 반영한 형태이기 때문에 伊藤智ゆき(2002)가 介音과 主母音의 복합체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 것은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金武林(2006:102-103)은 [暌]에 대해 捲舌音化한 正齒音과는 달리 近代 이후 舌面口蓋音으로 變化했기 때문에, 近代 이후의 漢字音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대 北京音에서도 虞韻은 魚韻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 -u형 또는 -ju형으로 출현하며, 대부분의 방언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출현하지 i모음이 후접한 형태나 前舌化된 형태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다른 韻에 출현하는 i모음첨가형에 대한 설명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본 吳音과 漢音의 -iu형, -ju형, 그리고 월남한자음의 -u형에서도 -i가 후접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虞韻 ㅅㅑ류에 출현하는 韓國한자음의 -ju형은 -ju형으로 수용한 이후에 韓國어 자체의 i모음첨가 현상으로 인해 15C 이전에 變化된 것으로 판단된다.

9. 開口3等 尤韻 ㅅㅑ류

<表9-1> 尤韻 ㅅㅑ류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精	儻	暌					tutu	

18) 伊藤智ゆき(2002:132-133)는 첫째 [暌]는 원칙적으로 止攝 ㅅㅑ口音에서만 나타나, 聲母의 영향에 의해 매우 前舌狹母音化한, 口蓋音이 강한 y를 표시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즉 [暌]의 ㅅㅑ음 i는 운미 i를 본뜬 것이 아니라, [ㅅㅑ] 전체가 介音과 主母音의 복합체임을 표시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둘째 [暌]라는 음절이 [츄]와 변별성이 없어짐에 따라 생긴 韓國한자음 내의 새로운 한자음이라고 보았다.

牀	驟		취					sâu
穿	臭	취	취		취4,5,6,7,8	シユ1,2 シウ1,6	シウ1,4	xu
	醜	취			취2,4,9	シユ1,2,3 스2	シウ2,3,6	xu
從	就		취		취2,3,4,5,6/취4	シユ1,4,6 シウ1	シウ4,5	tuu

<表9-2> 尤韻 갑류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 및 各國漢字音 反映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越音	韓國漢字音
尤개3갑	-iəu	-iu	-iu	-iu	-iu	-tuu -u	-ju

開口3等 尤韻 갑류는 한국한자음에서 -ju형으로 출현하며, 일본 吳音과 漢音도 대부분 -iu형으로, 월남한자음은 -tuu[-iü]형이나 -u형으로 출현한다.

그런데 위의 <표9-1>과 같이 한국한자음에 齒音字를 중심으로 [儻驟臭醜就 취]라는 i모음이 첨가된 -jui형이 출현한다. 李潤東(1997:247-248)은 이러한 반영에 대하여 上古音韻尾 g가 탈락되면서 i로 바뀐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伊藤智ゆき(2002:132-133)는 -jui형인 이들 [취]에 대하여 虞韻 갑류 -jui형과 동일하게 두 가지 추정을 하였는데, [취]는 介音과 主母音의 복합체임을 표시하고 있거나 한국한자음 내의 새로운 자음이라고 하였다. 李準煥(2011b:201)은 -jui형은 규범적인 표기로 간주될 수 있지만, -ju형보다는 다소 前舌化된 특색을 보이는 모음의 실현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¹⁹⁾.

이 尤韻 갑류는 <표9-1>과 같이 中古音의 변화에서도 i모음이 후접한 형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일본 吳音과 漢音에서 대부분 -iu형으로 출현하며, 월남한자음에서도 -tuu[-iü]형이나 -u형으로 수용되어²⁰⁾, i모음이 후접하는 자음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중국어 음운사를 통해서도 타국한자음의 자음형을 통해서도 i모음을 후접하게 하는 어떤 요인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한국한자음 -jui형은 -ju형으로 반영된 이후에 한국어 자체의 i모음첨가현상으로 인해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19) 李準煥(2011b:201)은 실제 한자음의 양상을 보면 이 자료가 口語를 대폭 반영하고 있는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이들이 -ju형으로 교체된 예들이 널리 나타난다고 하였다. 母音韻尾 j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中世 국어한자음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20) 尤韻 갑류는 중국의 현대 北京音과 방언에서도 병음표기와 음성표기로 나타내면 -iu[iou]/-ou[ou] 또는 -iu[iou]/-ou[uɔ]로 i모음이 첨가되지 않는다.

10. 開口3等 支韻 갑류

<表10-1> 開口3等 支韻 갑류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心	璽	스			새※(16C 이후)	シ3	シ3	ti
山	屨				세3/시4		シ4	si

<表10-2> 開口3等 支韻 갑류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 및 韓日漢字音 반영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越音	韓國漢字音
支개3갑	-i <i>i</i>	-i <i>i</i>	-i <i>i</i>	-i	-i	-i	-i -e

開口3等 支韻 갑류는 한국한자음에서 대부분 -i형으로 나타나며 齒音字에는 -e형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吳音 및 漢音, 베트남한자음도 대부분 -i형으로 나타나 한국한자음과 유사한 반영을 보인다. 단지 吳音에서는 齒音字에 -i형 이외에 主母音을 반영한 일부 -e형이 혼재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表10-1>에서 [璽/屨시]와 같이 i모음이 추가된 형태의 자음형을 확인할 수 있다. [璽]는 訓蒙字會에서 [璽스]로, 16C 이후에서는 [璽새]로 출현하여, 15C까지 [璽스]이었던 것인 [스>사>새]의 과정을 거쳐 16C 이후에 [새]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屨]는 현음이 [사]이지만 小學에 [시]가 출현함으로써 보아 한국한자음에서는 수용 당시 [스]로 수용되었으며, 15-16C에 이 [스]와 i모음첨가형인 [시]가 공존하다가 결국 규범의식의 작용으로 [스>사]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11. 合口3等 支·脂韻 갑류

<表11-1> 合口3等 支韻 갑류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精	精		취				tuy	
穿	吹	취	취	취 취	취2	스1,2,3,6	스4	xuy
	炊	취	취					xuy

<表11-2> 合口3等 脂韻 갑류의 i모음첨가형

聲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越音
		字會	類合	千字	기타			
精	醉	취	취		취3,4,6	스1,3,4,6	스1,5,6	tuy
淸	翠	취	취		취3,4		스1,3,4	thuy

<表11-3> 合口3等 支·脂韻 갑류에 걸친 中古音의 변화 및 韓日漢字音 반영 比較表

韻	南北朝音	切韻音	秦音	吳音	漢音	越音	韓國漢字音
支합3갑	-wiɿ	-wiɿ	-wii	-ui	-ui	-uj	-ju
脂합3갑	-wiəi	-wiəi	-wii	-ui	-ui	-uj	-ju

합口3等 支·脂韻 갑류는 한국한자음에서 대부분 -ju형으로 나타나며, 일본 吳音 및 漢音은 -ui형, 베트남한자음은 대부분 -uj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의 <表11-1>의 [觜吹炊취], <表11-2>의 [醉翠취]와 같이 한국한자음에 i모음이 첨가된 형태의 -jui형이 출현한다.

먼저 한국한자음의 기본적인 반영인 -ju형은 타국한자음에서 대부분 -ui형으로 출현하는 점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한자음에서는 합口3等 갑류운에서는 합口성과 拗音성 중 拗音성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적으로 1音節로 수용하고 있다. 즉 타국한자음과 비교해 볼 때 -ju형은 -jui형으로 수용하려 했던 것이 -jui형은 2音節에 가깝게 실현되므로 i모음을 탈락시킨 -ju형으로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jui형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자음형일 가능성과 -ju형에서 i모음첨가현상으로 변화된 자음형일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15C 이전의 자료를 통해 좀더 검증해야 할 문제이지만, 합口3等 支·脂韻 갑류의 기본적인 반영이 -ju형이라는 점과 虞韻과 尤韻에서도 -ju>-ju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支韻의 [觜吹炊취]와 脂韻의 [醉翠취]는 15C 이전에 i모음첨가현상으로 성립된 자음형으로 판단된다.

結論

이상 본고에서는 한국한자음에서 i모음이 첨가된 형태의 字音形을 취하고 있는 예를 각 韻별로 추출하여 中古音, 일본 吳音 및 漢音, 월남한자음과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한국한자음에서 i모음이 첨가된 형태의 字音形이 출현하는 韻은 歌韻(開口

1等), 戈韻(合口1等), 模韻(開口1等), 豪韻(開口1等), 麻韻(開口2等), 山韻(合口2等), 魚韻(開口3等) 갑을류, 虞韻(開口3等) 갑류, 尤韻(開口3等) 갑류, 支韻(開口3等) 갑류, 支·脂韻(合口3等) 갑류에 해당한다.

단지 山韻(合口2等) 이외에는 모두 모두 陰聲韻에 해당하며, 山韻(合口2等)에 출현하는 예도 入聲이 탈락한 형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陰聲韻에만 출현한다고 볼 수 있다²¹⁾.

이를 한국어의 母音별로 보면 a>ai, oa>oai, e>ei>ai, o>oi, ə>əi, jə>jəi, ju>jui와 같이 a, e, ə, o, u라는 거의 모든 모음 뒤에 출현하고 있으며, 또한 단모음화에 동조한 현상으로 볼 수 없다.

2)한국한자음에서 i모음이 첨가된 형태의 字音形을 취하고 있는 聲母는 見母(k), 喻母(j), 透母(t^h), 知母(t), 澄母(d), 泥母(n), 來母(l), 精母(t̚), 淸母(t̚^h), 從母(dz), 穿母(t̚^h), 牀母(d̪), 心母(s), 審母(ɕ), 山母(ʃ)에 해당한다. 이를 한국어의 子音별로 보면 ㄱ(k), ㄴ(n), ㄷ(t), ㄹ(l), ㅁ(m), ㅅ(s), ㅇ('j), ㅈ(t̚), ㅊ(t̚^h), ㅌ(t̪), ㅍ(p^h)로, 거의 모든 子音 뒤에 출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舌·齒音의 영향이나 口蓋性子音의 영향으로 前舌化가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성립하기 어렵다.

3)한국한자음에서 i모음이 첨가된 형태의 字音形을 취하고 있는 韻은 중국어 음운사를 통해서도 타국한자음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대부분 i모음을 첨가시킬 어떤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중국어의 영향이 아닌 한국어 자체의 i모음첨가현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4)한국한자음에서 i모음첨가현상이 일어난 한자에 대해 15-16C를 기준으로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15-16C 이전 완료: 箇*가>개, 瑣*좌>쇄, 賂*로>뢰
- ②15-16C에 진행: 牢로>뢰, 鎖좌>쇄, 霸파>패, 罵마>매
- ③16C 이후 진행: 馱타>태, 刷좌>쇄,
- ④16C 이후 소멸: 妥*타>태>타, 罔*거>게>거, 豬*더>데>저
- ⑤발생시기 불명: 個*가>개

따라서 한국어의 i모음첨가현상은 15C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21) 단지 [則]字的 [측/측>칙]의 변화도 i모음첨가현상과 동일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權仁澣(1997) 「漢字音의 變化」 『國語史研究』, 國語史研究會. pp.315-325
- _____ (2006) 「中世國語漢字音」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pp.57-94
- _____ (2009) 『改訂版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 金徑暄(1998) 『국어 하향이중모음의 통시적연구』, 成均館大學校 學位論文. pp.147-177
- 金大星(2003) 『韓日資料による中古漢音韻母音の再構』, 제이앤씨.
- 金武林(2006)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 반영 양상의 종합」 『한국어학』제30권, 한국어학회. pp.90-132
- _____ (2012) 「中世國語 特異 漢字音의 時代性 論議-古代國語 借字表記와의 比較를 통하여-」 『한국어학』제54권, 한국어학회. pp.117-136
- 金正彬(2007) 「安田八幡宮藏大般若波羅蜜多經分紐分韻表」 『일본오음연구』, 책사랑. pp.371- 530
- 유창돈(1964) 『李朝國語史研究』, 이우출판사. pp.32
- 李京哲(2003a) 『한·일 한자음 체계의 비교연구』, 보고서. pp.115-232
- _____ (2005) 『佛母大孔雀明王經 字音研究』, 책사랑. pp.171-274
- _____ (2014) 「韓日漢字音 1·2等 合口韻 受容樣相의 비교 고찰」 『日本語文學』第60輯, 韓國日本言文學會. pp.79-95.
- 李敦柱(2001) 「한국한자음의 특성」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pp.123-135
- _____ (2003) 『韓中漢字音研究』, 태학사. p.150
- 이승녕(1988) 『이승녕국어학선집1(음운편1)』, 민음사. pp.514-531
- 李潤東(1997) 『韓國漢字音의 理解』, 螢雪出版社. pp.139, 202, 247-259
- 李準煥(2007) 『근대국어 한자음의 체계와 변화』, 成均館大學校 學位論文. p.202
- _____ (2011a)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1)」 『한국어학』제51권, 한국어학회. pp.255-286
- _____ (2011b)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2)」 『大東文化研究』第74輯,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pp.180-219
- 趙大夏(2000) 「推古朝遺文 字音假名の 一性格」 『日本語學研究』第2輯, 韓國日本語學會. pp.257-272
- 최희수(1996) 『朝鮮語 漢字音研究』, 韓國文化史. pp.196-198
- 허웅(1952) 「‘애 에 외 익’의 音價」 『국어국문학』제1호. pp.7-8
- _____ (1965) 『國語音韻論』, 正音社. pp.434-437
- 伊藤智ゆき(2002) 『朝鮮漢字音の研究』, 東京大学 學位論文. pp.111-178
- 小倉肇(1979) 「金光明最勝王經音義字音攷(Ⅱ)」 『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第41号, 弘前大学. pp.1-10

- _____ (1995) 「法華經音義字音対照表」 『日本呉音の研究』, 新典社. pp.426-443
- 河野六郎(1979a) 「朝鮮漢字音の研究」 『河野六郎著作集2』, 平凡社. pp.436-494
- _____ (1979b) 「資料音韻表」 『河野六郎著作集2』 別冊, 平凡社. pp.308-322
- 佐々木勇(2009) 『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 資料篇』, 汲古書院. pp.82-550.
- 高本政雄((1982) 『日本漢字音の研究』, 風間書房. pp.488-505
- 榎木久薫(1989) 「光明眞言土沙勸信記の字音について」 『鎌倉時代語研究』第12輯, 鎌倉時代語研究会. pp.215-284
- 柏谷嘉弘(1995) 『日本漢語の系譜』東苑社. pp.403-473
- 沼本克明(1995) 「觀智院本類聚名義抄和音分韻表」 『日本漢字音史論輯』, 築島裕(編) 汲古書院. pp.125-186
- _____ (1997) 『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 汲古書院. pp.277-346
- 董同龢(1944) 『上古音韻表稿』,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pp.123-249
- 王力(1985) 『漢語音韻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pp.215-244
- 李方桂(1980) 『上古音研究』, 商務印書館. pp.36-73
- 鄭張尙芳(2003)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pp.70-249
- www. hanviet.org(漢越字典) (검색일 2014. 05. 10)

투 고 일 : 2015. 8. 31
심 사 일 : 2015. 9. 12
계재확정일 : 2015.10. 3